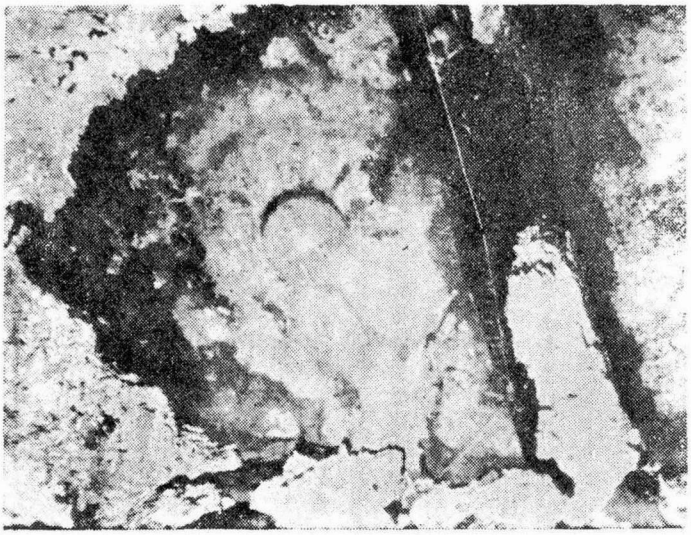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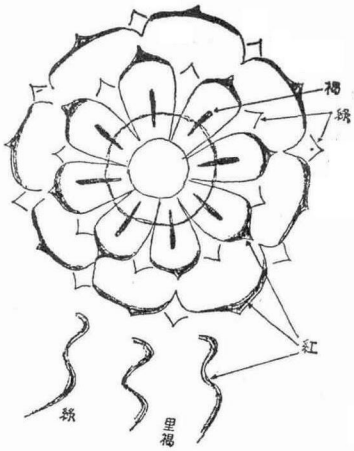

여기 石室墳의 玄室이 公州式의 둔늘形인點 또 그 羨道가 統一時代의 慶州地區石室墳과는 달리 玄室의 東쪽에 偏在하여 高句麗나 百濟의 所謂 L字墳과 共通하고 있는 것도 興味있다。高靈의 이 壁畵古墳은 아마 六世紀中葉가까운 一加耶時代의 夫婦合葬墓라고 推測된다。

註：月城郡 內南面三陵의 橫穴式石室에서 羨道와 玄室의 壁에 壁畵의 痕跡이 있었다고 齊藤忠氏가 그의 「朝鮮古代の文化」(東京一九四三年(pp. 146-147)에서 말하고 있다。이것은 一九三八年에 盜掘者가 뚫고 들어간 것인데 곧 구멍이 메꾸어져 버렸다고 한다。

高麗銅鍾의 新例

崔 淳 雨

最近 H氏의 好意로 異例的인 高麗時代銅鍾 一口를 調査할 機會를 갖게되었다。全高 二〇·七cm 口徑 一四·一五cm 鍾口두께 一·一cm의 小鍾에 不過하지만 이 鍾身의 形態와 배흘림의 曲線 그리고 龍鈕 甬筒等 鍾頂部의 意匠을 살펴보면 아담한 高麗梵鍾樣式을 잘 갖추고 있으면서 鍾身部의 裝飾意匠만은 이제까지 例가 없었던 색다른 樣式을 보이고 있어서 興味가 깊었다。即 韓國鍾이 지니는 基本的인 鍾身意匠이라고 할 수 있는 上·下文帶 鍾孔 飛天 撞座等 陽鑄文 代身에 鍾身을 上·下 두 層段으로 나누어 各其 八個區式의 方廓文만을 鑄出해서 鍾身둘레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方廓이라 함은 말하자면 額子形을 線描한 것과 같은 一種의 重線 方形區로서 그 內線과 外線의 方角들을 斜線으로서로 連結해서 마치 額子틀의 짜임새 같이 보여지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鐘身에 이러한 方廓意匠을 表現한것은 開城 演福寺銅鐘의 佛尊이나 鐘銘等을 제두르고 있는 廓線에서 이미 그 例를 볼 수 있었으며 이 演福寺鐘의 方廓配置 역시 上·下 두 層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新例鍾의 方廓配置意匠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演福寺鐘은 上·下 層段 사이에 굵은 腰帶文과 梵字文帶를 두르고 있으며 下層 方廓아래로는 波濤文帶와 八稜口帶를 둘렀고 그 方廓의 數와 間隔이 좀 다를뿐이다。말하자면 開城 演福寺鐘의 鐘身裝飾意匠이 簡略化되면 이 新例鐘과 같은 方廓文鐘이 될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면 이 小鐘은 아마 演福寺鐘이 부어진 一三四六年에서 머지않은 어느 時機에 이 演福寺 元鐘樣式의 一部가 作用해서 在來 韓國鐘樣式과 混成된 高麗末期梵鐘의 一例라고도 할 수 있을듯하다。

이 鐘은 비록 演福寺鐘에는 비길수없는 小品에 不過하지만 鑄金이 매우 능숙하고 또 그 뒷처리에도 매우 정성을 드려서 다듬은 지취가 있고 四瓜龍鈕의 表現도 자못 精細한 솜씨를 보이고 있다。그리고 內部로 貫通된 四珠甬筒도 그 比例가 快適하고 또 鐘肩에 두른 一種의 圓頭文 立華장식도 정성이 드려진 솜씨이다。아마도 이 圓頭文 立華장식은 如意頭文이 退化된것인듯 그 圓頭의 大小가 고르지 않은것이 눈에 띄다고 할 수 있다。이 鐘의 保存狀態는 매우 좋아서 鐘身全面에는 고운 녹빛이 고르게 번져있고 또 거의 탓잡을 곳이 없는 좋은 솜씨이지만 出土地를 確認하지 못한 것과 다만 몇字라도 銘文이 있었더면 하는것이 이 鐘에 대한 아쉬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金銅如來立像

秦 弘 燮

忠南 牙山郡 松岳面 首谷里에서 出土되었다고 傳하는 이 佛像은 높직한 臺座위에 正面 直立하였는데 金色이 比較的 잘 남아있다。頭髮은 螺髮이며 둥근 顔面에 相好가 明瞭하지는 못하다。三道의 表示가 없고 法衣는 通肩이다。衣紋은 大凡하게 表現되어 前面에는 數條의 굵직한 隆起線으로 되어 있는데 두 다리에는 統一期 新羅 金銅佛에서 흔히 볼 수 있는 楕圓形이 各各 表示되었다。衣端은 두 팔에 걸쳤고 裙衣는 발목까지 내려오고 있다。右手는 허리까지 들어서 上掌하였는데 藥壺나 寶珠가 놓였던 痕跡은 없다。左手는施無畏印인듯하다。肢體의 均衡이 좋은데 側面觀으로는 頭部가 若干 큰便이며 腹部가 앞으로 내밀려있다。背面은 空筒인데 光背를 附加하기 爲하여 肩部와 兩足사이에 突起가 달려있다。

臺座는 底面 八角形으로 各面에 簡單한 眼象이 透刻되었고 그 위에 伏蓮臺가 얹히는데 伏蓮은 點線으로 七瓣 重葉을 나타냈는데 瓣內에 적은 葉이 있어 重瓣으로 되었다。伏蓮위에는 仰蓮이 놓이는데 亦是 點線으로 單瓣을 表現했는데 瓣數는 明確하지 않으나 八瓣 乃調 九瓣인듯하다。크기는 다음과 같다。

全高 一二㎝ 像高 八·二㎝ 頭高 二·一㎝ 臺座底徑 四·七㎝ 仰蓮臺徑 二·四㎝。

完州郡 三奇里의 石佛 二軀

鄭 永 鎬

全北 完州郡 高山面 三奇里 國民學校後庭에 坐像과 立像의 石佛二軀가 保存되어 있는데 一九六二年 十二月二十六日 同人 文甲洙 孟仁在 申榮勳 諸氏와 함께 이 곳을 訪問調査한 바 貴重한 資料이기에 紹介하려 한다。